1면에서 계속 ➡

당시 구성원 대표 간 합의가 끝난 뒤 9월에 제2안이 나오며, 그 사이 5개월간 구성원 간 논의는 무의미해진 것이다. 당시 경희대학교 노동조합(제1노조) 위원장으로 총추위에 참여한 학생지원센터 한상 차장은 “5월부터 이어온 논의가 무의미해졌다”며 “한 달 보름 정도 남은 기간 안에 촉박하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처음으로 구성원이 총장 선임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 차장은 “구성원이 투표라는 행위를 통해 총장 선임과정에 참여했기에 결과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17대 총장 선임 과정에서는 구성원 간 논의 과정조차 부재했다. 한 차장은 “17대 총장 선임은 논의 과정도 없이 진행됐다”며 “총장 선임에 대한 구성원들의 관심이 줄어들었음을 체감했다”고 말했다.

당시 노조 부위원장이었던 임경열 현 경희대학교 노동조합 위원장도 “16대 총장 선임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렵게 마련된 구성원 참여 방식이 17대 총장 선임제에서도 이어지기를 기대했던 만큼 아쉬움이 컸다”고 밝혔다.

17대 총장선임제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교수의회 내부의 의견도 엇갈렸다. 교수의회가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교수들은 직접 선거를 선호했다. 그러나 김도균 당시 교수의회 의장은 시간적 여유 부재, 총장 직무대행 체제 반대, 직선제 관철의 현실적 어려움을 들어 확정안 수용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구성원 의견 수렴을 위한 시간은 충분하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선임 과정에서는 비공개 원칙이 논란이 됐다. 지난 대학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익명의 총추위원 B씨는 후보 자료조차 “2~3장 분량의 자기 추천 수준”이었다며 후보의 자질을 검토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B 위원은 “법인은 총장 선임 절차가 약 1년간 진행됐다고 하지만 구성원이 체감하는 기간은 4개월 정도”라고 말했다. 또한 숙의위원 자격을 '국내외 선도 고등교육·학술기관 기관 경영 유경험자'로 정한 탓에 구성원 추천 숙의위원도 1개 단체를 제외하고 모두 외부 인사로 채워졌다(관련기사: '비공개 원칙', 구성원 참여 수준 낮춰 / 대학주보 1716호/2024.01.24.). 김종민 전국대학노동조합 경희학원지부장은 “제 17대 총장 선출과정의 비공개 원칙으로 구성원들은 선임 결과를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위치에 머물렀다”고 평가했다.

남은 시간 1년 3개월
구성원의 ‘개선 논의’ 요구

이처럼 총장 선임을 위한 준비 시간은 늘 부족했다. 16대에는 합의가 늦어져 1년 넘게 총장 자리가 비었고, 17대에는 그 경험에서 나온 ‘대행만은 피하자’는 우려가 구성원 투표가 빠진 안을 받아들이는 근거가 됐다.

18대 총장 선임까지 1년 3개월 남은 현 시점, 취재에 응한 구성원들은 지금부터 선임 방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 지부장은 “선임 일정에 제도 개선 논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제도 개선 논의를 거친 뒤 선임 일정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은 “현 구성원 대표들의 임기가 올해 끝나는 만큼, 내년 1월 새 대표단이 꾸려지면 총장 선출제와 관련된 사안들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총장 선임 과정에 구성원 투표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차장은 “민주주의의 꽃이라면 투표”라고 말했다. 다만 김 지부장은 구성원 직접 투표를, 임 위원장은 구성원 대표 선거인단 투표를 제안했다.

지난 두 차례 총장 선 과정을 평가하는 공식 논의기구를 꾸리자는 의견도 있다. 김 지부장은 “논의기구에 각급 구성원 대표가 참여하고 법인도 책임 있는 주체로 참여한다면 좋을 거 같다”고 말했다.


구성원들은 제18대 총장 선임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대학주보 DB)



① 대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공사 현장 (사진=윤혜원 기자)
② 대운동장 예상 조감도(안) (사진=시설운영팀장 제공)

대운동장 인조잔디 공사 착공 12월 준공…학생 이용은 내년 초

윤혜원 기자 yhyyhy0622@khu.ac.kr

【국제】 대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공사가 지난달 27일 시작됐다. 준공은 12월 14일로 예정됐으며 일반 학생들은 12월 말이나 내년 1월 초부터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우리신문은 지난 9월 시설 이용 조건을 둘러싼 의견차로 용인시와 최종 협약 체결이 지연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대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10월 착공, 주말 오전 외부 대관·학생 이용 제한/대학주보 1766호/2026.09.06.) 이후 지난 9월 10일 용인시와 최종 협약이 체결됐으며, 지난달 26일 공사 계약을 맺고 27일 착공했다.

공사를 마친 대운동장에는 국제축구연맹(FIFA) 기준에 맞춘 인조잔디 축구장과 축구장 둘레를 따라 트랙 2개 레인이 조성될 예정이다.

총무관리처 시설운영팀 유중근 팀장은 “통상 야외 공사에는 60일 이상이 소요되지만 이번 공사는 약 50일 목표로 일정이 촉박해 우천 등 현장 여건에 따라 준공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운동장은 공사 완료 후에도 주변 정리와 안전 확보 절차를 거친 후 일반 학생들에게 개방될 예정이다.

공사 기간에는 안전을 위해 대운동장 내부 출입과 주차가 제한되지만, 주변 통행로는 이용할 수 있다. 운동장 이용이 필요한 경우 럭비장이나 공대 인조잔디구장 등을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축구부는 공대 인조잔디구장에서 훈련하고 있으며, 일부 수업은 선승관과 공대 인조잔디구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용인시와의 논의에서 주요 쟁점이었던 외부 축구 동호회의 대관 가능 시간은 휴일 오전 6시부터 낮 12시로 최종 결정됐다. 학교 측은 학교 주요 행사와 축구부 훈련 일정 등을 미리 전달받아 외부 대관 일정과 조정할 예정이다. 다만 유 팀장은 “갑작스럽게 학교 행사가 생기는 경우 이미 예정된 대관을 제한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팀장은 “최대한 신속하게 공사를 마무리해 대운동장과 주변 공간이 운동시설뿐 아니라 공원이나 만남의 광장처럼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말했다.